



하염없이 기다리던 아들인데
 눈 한번 떠서
 “어! 조카 왔구나” 한 말씀 후
 다시 깊은 잠으로
 정신 놓아 버린 아버지

단정히 깎인 머리
 잘 계시라고
 쓰다듬고 쓰다듬어도
 눈 뜨시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날
 못난 아들 옆에 없어도
 잘 가시라는
 마지막 인사같이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며
 눈물 길 돌아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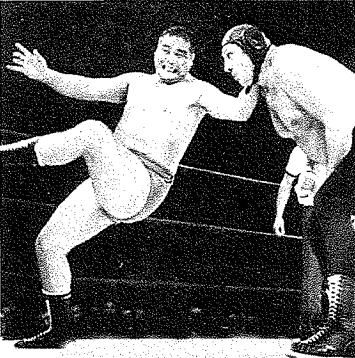
정신 맑을 때 물으면
 당신 어머니와 아들, 딸 이름
 찬송가 몇 곡
 목련화 노래
 의기양양하게 대답하시던
 내 아버지

이제 천천히 고귀한 퇴장 하시며
 모든 것 용서하러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려 해도
 나는
 당신을 가슴시린 이 한마디로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랬지 ▶ 김 일 선수의 별세

자이언트 바바, 안토니오 이노끼... 지금도 그 이름만 들어도 그 때의 흥분이 일어날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쟁을 지라도 우리의 김 일 선수가 한 발을 들었다 놓으며 하는 박치기를 보는 흥분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광재 아나운서의 “우리의 아들 김 일 선수” 라는 까랑까랑 멘트가 있어 더 감흥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레슬링이 있는 날 다방 앞에 투박한 글씨로 그 시간을 알리는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 일 선수의 부음 소식 접하며 가난한 시대에 몸 던지며 희망을 준 그분께 “고맙습니다” 라는 말로 마지막 배웅을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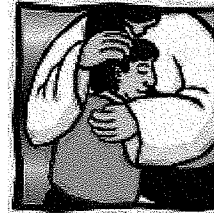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마7:8)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8권 4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10월 29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약점의 선배들

김양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를 두번이나 팔아먹었고, 야곱은 바지런하기는 했지만 욕심 많은 거짓말장이에 사기꾼적 기질도 다분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귀었고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지만, 그전엔 한 성깔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광야로 뺧소니쳤던 도망자였다.

아론은 지도자라 하면서도 금송아지 숭배의 어처구니없는 일에 앞장섰고, 발각났을 땐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기도 한 비겁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힘은 셋지만 평생 여자문제에 시끄러다가 결국 여자때문에 치명타를 맞은 절제되지 못한 인물이었으며,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긴 했지만, 실상은 술집 여자였다.

사울은 준수한 외모와는 달리 시기와 질투 속에서 평생을 허겁지겁 쫓기며 왕답지 못하게 체통 구기며 살았고, 다윗은 탁월한 인격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지었으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더 무서운 살인까지 하였다.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이 탁월했지만, 넘치는 부귀와 영화를 주체치 못했으며, 복잡한 여자 관계와 우상숭배에서 평생 벗어나지를 못한 까닭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대에 가서는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하고 말았다.

엘리야는 엄청난 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간악한 왕후 이세벨의 독기 서린 말 한마디에 맥이 빠져 우울증에 시달렸었고, 엘리샤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지만, 자신의 대머리를 놀리는 아이들을 용납못하고 저주하여 때죽음을 맞게 한 속이 좁은 사내였고, 요나는 적국 니느웨가 복음화되는 걸 끝내 마땅찮아했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까지 부려뒀던 못된 소가지를 버리지 못했다.

마르다는 일은 잘 했지만, 전형적인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지만 본 모습은 남편을 여러 번 바꾼, 성생활이 무지 문란한 사람이었으며,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전형적인 퇴폐관리였다.

원래부터 완전치 않았던 사람들,
 도무지 완전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듬고 훈련시켜서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신 분이시다.

◀말씀따라 행하기▶

내세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현세에
 죄를 짓습니다

◀인품따라 행하기▶

근면한 자에겐
 모든 것이 쉽고
 나태한 자에겐
 모든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y	Calvary	다 같 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8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7(이사가 40)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327장	다 같 이
기 도 Pray		양경배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4:1-11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시험 앞에도 당당해라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49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485 + ₩30,000	총액:\$147,103
-----------------------------	--------------

◆11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차 량	안 내
29	양경배	이근평	본당:윤주야 임혜자
5	이근평	이재영	현관:박일영
12	이재영	김교섭	이광희
19	정관영	박일영	새교우:이근평. 장유진
26	조용건	이광희	

◆11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5	월초새벽기도회(1) 여선교회(5).구역예배(10)
12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4)
19	추수감사주일
26	이삭줍기주일 수요수도원(29)

『교 회 생 활』 2006년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교 회 등 록』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 12:30분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토 오후 5시

1. 교우소식

- <이사> 장기숙 집사(순영.성용). 18 Mcdonald Cre. Mt Wellington
☎ 579-7736
- “월초 새벽기도회” <일시> 11월 1일 새벽 5:55분 교회당
*아직 응답없는 간구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5:24)” 는 말씀 앞에 확신안고 무릎 꿇습니다.
- 여선교회 모임 “여성만의 Heaven”
*금주 중에 여 선교회 모임을 가지면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 있기 바랍니다
- “금주 수요예배” : 이재철 목사 신앙집회에 연합 참여합니다.
<장소> 정원교회(497 Remuera Rd. Remuera) <시간> 저녁 7:30분
*주차가 조금은 불편할 것으로 예상, 조금 먼 곳에 미리 주차하고 걷는것도 빠른 방법입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때론 돌아가는 게 더 지름길임을 알겠습니다
- 좋은 말씀 집회에 참석 권합니다. “이재철 목사 신앙집회”
<일시> 10월 31일(화)-11월 2일(목) 저녁7:30분
<주최> 정원교회(497 Remuera Rd. Remuera)
- 봄맞이 대심방
<일자> 11월 첫주간부터 <방법> 구역별 <구역장 모임>: 예배 후 유아실
<심방시간> (1)낮(월,화,목): 오전 10시-오후2시
(2)저녁(금,토) : 오후 6시- 10시

◀착한 시인들▶ 아침마다 눈을 박목월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착한 일을 해야지
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은 날마다 금빛 수실로
찬란한 새벽을 수 놓으시고
어둠에서 밝아오는 빛의 대문을 열어 젖혀
우리의 하루를 마련해 주시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돕고
괴로운 이가 있으면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알는 이가 있다면 찾아가 간호해 주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밝은 하루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착한 일을 마음 속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피조물이 아름다운 것은 제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제자리에 있어 흙을 붙들고 있고 꽃이 제자리에 있어 벌과 나비를 날아 다니게 합니다. 강이 제자리에 있어 물을 흐르게 하고 하늘이 제자리에 있어 구름이 떠 가게 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있어 그대가 빛나 보이고 그대가 있어 내가 살아 갈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 할 세상입니다.